

위기 아동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책무 및 역할연구

조 은 하

목원대학교

〈요 약〉

기독교교육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 속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고는 위기를 느끼게 한다. 전반적으로 배움의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친구,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기” 속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의 해체와 빈곤의 심화 등으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기독교교육이 감당해야 하는 빈곤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교회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회교육적 책임을 논하기 위한 신학적 근거는 기독교 신앙의 통전성이다(시편 146편). 기독교교육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개신교 아동교육의 주요한 체계인 ‘주일학교’의 태동이 빈곤과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응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사회 속에 놓인 빈곤아동들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접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독교교육의 응답과 책무를 모색하였다.

첫째, 기독교교육의 디아코니아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성을 모색하였다.

둘째,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아동교육의 영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센터의 운영, 아동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같은 교육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의 사회 참여적 활동 및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연합적이고 교단적 차원에서 해야 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 주제어: 위기아동, 현대신학, 기독교교육, 사회적 책무, 디아코니아

I. 들어가는 말: ‘빌리 엘리어트’를 꿈꾸며

11살 소년 빌리는 영국 북부지방에 살고 있다. 광부인 형과 아버지는 파업 상태이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빌리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권투장갑을 끼고 체육관을 찾는다. 체육관에서는 권투 교실과 발레 교실이 함께 열리고 있다. 그러나 곧 빌리는 자신의 발이 손보다 훨씬 능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발레 선생님인 윌킨슨 부인의 독려에 힘입어 권투를 그만두고 발레 교실로 옮기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빌리의 아버지는 곧 그를 말리지만 빌리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런던의 로얄 발레학교 입학시험을 보라고 격려해 주는 윌킨슨 부인과 함께 열심히 오디션을 위해 준비한다. 그리고 빌리의 춤을 본 아버지도 발레만이 빌리가 탄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를 런던으로 보내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죽은 부인의 패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들어가며 결국에는 시위를 포기하고 탄광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 이처럼 아버지의 헌신적인 배려와 빌리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된 가족의 격려 속에 빌리는 오디션을 받게 된다.

빌리는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다. 빌리가 런던으로 떠나는 날 아버지는 다시 창살 엘리베이터를 타고 탄광으로 들어간다. 발레슈즈를 신고 새가 되어 자신이 태어나 자라온 그 검고 침울한 탄광촌으로부터 날아오르고 싶은 빌리와 자신은 깊은 탄광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아들에게는 광부의 삶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픈 아버지. 시간이 흘러 아버지와 형은 난생 처음 발레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런던으로 오게 된다. 빌리가 주인공인 공연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빌리는 드디어 자신의 선택이자 희망이었던 발레의 힘찬 도약을 통해 발레리노로서 자신의 정체감을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며 새처럼 힘차게 날아오른다. 참으로 감동적인 영화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교육점 시사점은 다양하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그 의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¹⁾ 둘째,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이끌어 주는 부모와 교사와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이다. 셋째, 삶의 빈곤과 궁핍의 굴레를 벗어나 더 나은 자신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삶의 희망과 구조적 환경의 중요성이다. ‘최적의 좌절 (optimal frustration)’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수용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빌리 엘리어트는 행복한 아이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2010년 5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의 초4~고3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1) 영화 “빌리 엘리어트” 중에서

지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1점으로 OECD 국가(평균 100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삶에 만족한다'는 대답도 53.9%에 불과해 OECD 국가(평균 84.8%) 중 가장 낮았다. 주관적 행복을 구성하는 6가지 항목 중 삶의 만족도와 건강, 소속감, 외로움 등에서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삶에 만족한다"는 학생 비율은 53.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명 중 1명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26.5%),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18.3%)는 비율도 가장 높았고, "외로움을 느낀다"(16.7%)는 2위를 차지했다.²⁾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학업 스트레스였으며 그 뒤를 이어, 외모관련, 부모관련, 물질관련, 친구관련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아울러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아동,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빈곤과 결손 환경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률 감소의 원인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나 그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육아와 교육"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삶의 정체성과 가치관 및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적극적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 신앙교육을 그들의 삶의 컨텍스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기독교 교육과정은 신앙적 차원의 관심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삶의 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속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기아동의 문제 가운데 특별히 빈곤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한국사회의 빈곤에 처한 위기아동의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빈곤에 관하여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위한 신학적 기초를 위하여 기독교신학의 빈곤문제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 빈곤에 관한 교회의 대처유형 및 사회적 교육적 대책 속에서 현 사회 속에서 당면한 빈곤아동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역할에 대한 통찰을 살펴보도록 한다. 네 번째, 교회공동체의 교육적 실천 속에서 '빈곤'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 하겠다.

2) <오피니언 사설>, 《경향신문》, 2010년 5월 4일자.

II. 한국사회 위기 아동들의 빈곤 경험에 대한 현실

현재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동의 수는 점점 줄고 있는 것에 비하여 위기에 놓이는 아동들의 수는 더 많아 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다. 현재 아동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표 1〉 아동인구수와 총인구대비 비율

(단위: 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0-4세	4,316,143 (137.)	4,227,360 (12.2)	3,794,692 (10.1)	3,702,555 (9.2)	3,279,790 (7.6)	3,427,409 (7.7)	3,130,258 (6.8)	2,382,350 (5.0)
5-9세	4,531,942 (14.4)	4,453,698 (12.8)	4,420,946 (11.8)	3,916,350 (9.7)	3,862,508 (8.9)	3,096,115 (7.0)	3,444,056 (7.5)	3,168,887 (6.7)
10-14세	4,393,348 (14.0)	4,527,330 (12.8)	4,440,137 (11.9)	4,475,985 (11.1)	3,991,917 (9.2)	3,711,980 (8.3)	3,064,442 (6.7)	3,434,891 (7.3)
15-19세	3,088,134 (9.8)	4,146,912 (12.0)	4,239,729 (11.3)	4,316,264 (10.7)	4,448,996 (10.3)	3,863,419 (8.7)	3,691,584 (8.0)	3,100,523 (6.6)
0-19세 소계	16,329,567 (52.0)	17,355,300 (50.1)	16,895,504 (45.2)	16,411,154 (40.6)	15,583,211 (35.9)	14,098,923 (31.7)	13,330,340 (29.0)	12,086,651 (25.6)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년도

그러나 이러한 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해체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한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율)은 1970년의 0.4에서 2005년에는 2.6로 무려 5배 이상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은 2000년에는 71.5%로 나타났으며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일정하게 65-7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수가 10-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한 아동의 절대 빈곤률은 1996년에 3.63%였던 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에는 8.79%로 나타나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빈곤 아동 수는 약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이와 더불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빈곤, 가족해체, 학대 등의 가족적 위기상황과 학업중단, 음주흡연, 가출, 범죄 등 개인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위기 아동의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인구수의 절대수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은 증위기와

3) 통계청,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참고.

4)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06년 연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와 희망을 키운다』(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9), 24쪽 재인용.

고위기를 합쳐서 약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⁵⁾

〈표 2〉 위기아동수 및 전체아동 대비비율

(단위: 명, %)

	2003년	2004년	2005년
고위기 아동	46만 2천명 (3.7)	42만 4천명 (3.4)	44만 5천명 (3.7)
중위기 아동	141만 9천명 (11.3)	138만 6천명 (11.2)	138만 1천명 (11.4)
위기 아동 (고위기+중위기)	188만 1천명 (15.0)	181만명 (14.6)	182만 6천명 (15.1)
전체 아동	12,584,125(추정) (100.0)	12,335,388(추정) (100.0)	12,086,651 (100.0)

출처: 정익중,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개발의 과제, 2006

특별히, 빈곤은 위기아동들이 공통적 상황일 경우가 많으며, 아동의 기본적 생존욕구마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의 장애물로 남을 뿐 아니라 결국 빈곤으로 인한 학습의 결핍, 정서적, 사회적 발달 지체 등은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⁶⁾ 이러한 빈곤의 가난 대물림 현상은 구체적으로 신체적 차이와 학력차이로 현저하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부모의 직업군과 소득수준이 자녀들의 학업은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에 있다.

〈표 3〉 학교급별 부모소득 수준⁷⁾

(%)

	외고	일반계고	실업계고
상위직	44.8	13	3.6
중위직	40.2	42.8	33.9
하위직	11.1	28.4	32.3
무직/기타	3.3	14.7	29.9

이러한 사회계층 및 소득의 격차는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로 가면서 신체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전문계고 학생 키와 몸무게는

5)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앞의 책, 26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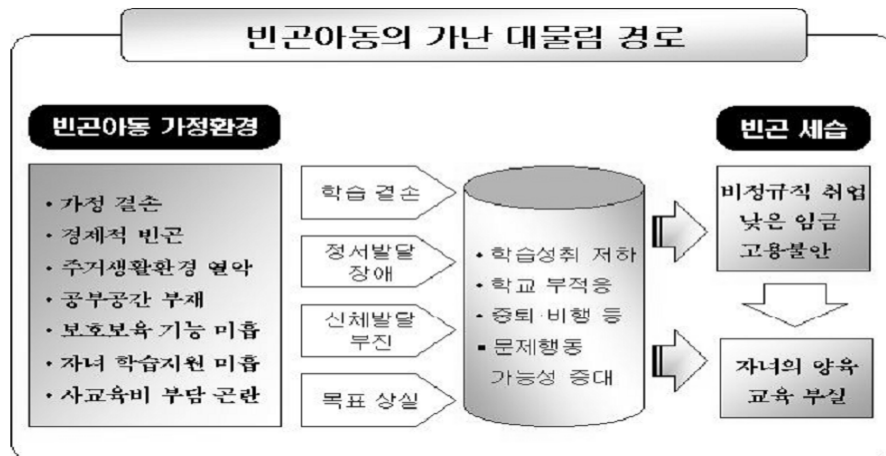
6) 권영길,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서울: 권영길의원실, 2009), 2009년 10월 발표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상태에서 수능 상위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집값과 학력순위와의 일치도가 높아진다. 특히 학력순위와 상위등급 비율이 대단히 흡사하다.

7) 위의 자료 참고.

171.4/ 63.6 일 때 자사고 학생은 172.8/65.6로 차이가 나며 이러한 수준에서 3년 동안의 차이는 지속된다.⁸⁾

전문계고 학생들은 자사고 학생들이 체격수준보다 떨어지는 것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빈곤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률은 전체 고등학생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특목고와 비교하면 3.3배 많다. 고교 진학률이 99.8%인 한국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양한 꿈과 진로를 위한 선택적 포기가 아닌 소외와 차별과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라면 이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전체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⁹⁾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듯이 빈곤아동의 대물림 경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¹⁰⁾



〈그림 1〉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 경로

Ⅲ. 빈곤에 관한 신학적 응답 및 교회공동체의 역할

사회 속에 존재하는 빈곤의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신학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또한 빈곤에 관한 신학적 응답은 무엇인가? 신학자 존 쾨닉 (John Koenig)은 빈곤에 관한 신학적 응답을 “환대의 신학”으로 설명한다. 신약성서에서 보여지는 환대개념이 세계

8) 권영길, 앞의 자료 참고.

9) 위의 자료 참고

10)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와 희망을 키운다』 (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9), 24쪽.

의 사회 경제적 재난 및 빈곤에 관한 포괄적인 해결을 제시할 수 없지만 상호성의 관계를 근거로 공존하는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성서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눅 11:2-4)”

“환난의 많은 시련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 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후 8:2-5)”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백 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5-47)”

위의 성서 내용은 매우 다른 상황과 관련된 것이지만 환대공동체에 대한 공통점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삶의 풍부함에 대한 경험은 희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나그네들과의 동반자적인 관계는 영적일 뿐 아니라 물질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추구한다. 셋째, 공동체의 희생을 통한 풍부함의 경험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가능하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능력을 부여받는다. 또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 공동체의 구성원이 필요함을 누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사회구조도 성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손님으로서의 나그네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지역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행위도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택 불가능한 장벽도 극복하며 침투하는 유동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대신학은 교회공동체에 있어서 ‘환대’와 ‘공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신학적 단초를 제공한다.¹¹⁾

최근 교회 공동체의 환대와 공존의 중요성, 즉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역할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에 논의를 다양한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신학자인 마가렛 콘펠트의 역동적인 공동체의 개념이다. 콘펠트는 공동

11) John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김기영 역, 『환대의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12-221쪽.

체는 단순히 치유가 발생하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치유(healing)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즉, 공동체를 통하여 각 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상처들의 치유되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즉, 전인적 공동체란 각 구성원들이 진정하고 친밀한 상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본래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공동체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공동체 안에서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한다. 즉 타자의 이야기에 적극적 경청을 전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¹³⁾ 2) 구성원들이 모두 자신들이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동일시라는 왜곡된 인식(false conception of Likeness)’에서 벗어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한 개인의 다름이 소외와 편견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동일시(sameness)는 자신과 유사한 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공감의 추구이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타자에 대한 동일시의 강요와 요구는 수용적일 수 없다. 또한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더불어 사는 삶을 형성해가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 어렵다. 3)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발견하고 삶의 희망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심리적 자립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컨텍스트 안에서의 목회적 돌봄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신학자 램지는 목회적 돌봄의 주요한 자아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관계적 정의’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관계적 정의란 각 개인을 사회문화적이고 관계적이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개인적인 심리에서 찾기 보다는 광범위한 문화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인종과 성별(gender), 성적인 경향(sexual orientation), 사회계층의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자아가 힘의 불균형과 구조적 불의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⁴⁾

세 번째는 해방적 실천을 위한 해석을 위한 신앙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입장이다. 목회상담학자 샤론 쏘튼은 신앙공동체는 ‘경청’에서 시작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경청이란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타인의 입장에 서는 일이며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이다. 이러한 경청을 통하여 타인의 아픔에 대한 상호의존의 관계 추구하며 주체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지와 후원을 통하여 해방적 실천(emancipator praxis)을 경험하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12) Margaret Kornfeld, *Cultivating Wholeness* (NewYork and London: Continuum, 1998), p.16.

13) Larry Graaham, *Care of Persons, Care of Worl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p.148.

14) Nancy Ramsey(ed),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edefining the Paradig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pp.9-10.

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회복 (restoration)을 추구하는 것이다. 회복은 공동체적 삶속에서 인간의 온전함을 다시 만들어 가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종류의 불의와 편견으로 무장된 상황에 대항하여 저항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¹⁵⁾

네 번째, 신앙의 통전성의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신학자 디터 헤셀은 기독교 신앙의 정치적 속성과 교회역할의 사회적 속성을 시편 146편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시편 146편 5-10)

위와 같은 성서적 근거에 의하여 기독교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구체적인 사회적 정황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¹⁶⁾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며 세상이며 어거스틴의 언급대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amor dei)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amor sui)이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문제로 귀결된다.¹⁷⁾

다섯 번째, 신학자이며 영성가인 케네스 리치는 성육신 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다. 즉 서구 기독교는 5가지 근본적인 왜곡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경시하는 태도,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인간을 비천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 개인구원의 강조, 성례전을 경시하는 태도 등이다. 이러한 왜곡된 관점은 세상을 과소평가하고 인간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왔다. 또한 영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을 분리하는 이원적 태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비주의의 기초이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렇기에 기독교사회신학은 인류의 신학적 연합이다. 기독교의 친교는 세계 곳곳에서 거리로 내

15) Sharon Thornton, *Broken yet Beloved: A Pastoral Theology of the Cross* (St.Louis, MO: Chalice Press, 2002), p.23.

16) Dieter T. Hessel, *Social Minist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2), p.13-14.

17) 양명수, 『기독교사회정론 - 가락하신 하나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56-164 쪽.

몰린 사람들, 역사 속에서 착취와 억압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 정치신학을 위해서는 인간 안에 있는 신의 형상과 세상 속으로 확장되는 성육신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성과 사회, 정치활동의 뿌리는 같다고 설명한다.¹⁸⁾

이러한 최근의 논의들은 교회공동체의 사회적 책무 및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돌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독교신앙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고 궁극적이고 지고한 가치를 추구하되 동시에 일상적이라는 점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삶과 삶,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신비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와 해석위에 기독교 교육적 관점으로 빈곤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 개신교회의 아동교육의 주요한 체계이며 실체인 “주일학교 (Sunday School)”의 시작이 바로 산업혁명의 급격한 사회변동속의 소외, 빈곤 아동들에 대한 종교적이며 교육적인 대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780년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 시작된 주일학교는 무지와 빈곤, 범죄와 소외 속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을 위하여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목욕을 시키며, 노래를 가르침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교육을 시작으로 성서를 가르쳤던 것이다. 즉, 주일학교는 사회적 삶의 컨텍스트에서 시작하여 종교적인 영역의 교육으로 그 관심과 역할을 확대시켜 갔던 것이다.²⁰⁾

IV. 빈곤아동을 위한 교회공동체의 기독교교육적 역할

그렇다면 오늘날 당면한 빈곤과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을 위하여 교회공동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가 가진 신학적 입장에 따라 빈곤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유형을 보여왔는가? 둘째, 빈곤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자립을 위하여 사회 및 지역공동체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셋째, 위에 논의한 환대신학에 근거한 교회공동체의 사회적 책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는 어떠한 기독교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18) Kenneth Leech, *The Social God*, 신현기 역, 『사회적 하나님: 교회는 왜 사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가?』(서울: 청림, 2009), 52-58쪽.

19) 조은하,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서울: 동연, 2010) 참고

20) Robert, Lynn, *The big little school*, 유재덕 역, 『크지만 작은 학교』(서울: 하늘기획, 2010) 참고.

1. 신학적 입장에 따른 빈곤 대처유형

빈곤은 어떤 사회에서든 존재했다. 또한 그러하기에 교회는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에 대하여 응답해야하는 존재론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향하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교회에서 빈곤에 대처하는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유형이다.(Spirituality) 이러한 입장은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이해한다. 이 입장에서는 빈곤의 문제를 영성의 문제로 이해하여 인간의 겸손함을 유지시키는 축복의 통로, 혹은 하나님이 죄에 내리는 처벌이라고 이해함으로 빈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²¹⁾ 두 번째 유형은 풍요의 차원에서 신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Prosperity)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기에 빈곤은 영적결함에서 오는 물질적 결과이므로 영성의 변화를 통하여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²²⁾ 세 번째 유형은 복음 전파는 곧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성의 해방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Liberation) 따라서 신앙은 가난한 자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²³⁾ 네 번째 입장은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의 해방 모두를 강조하고 수용하고자 한다. (Spiritual and Material) 교회는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물질적 세계의 개혁을 추구하는 기구이며, 복음이 사회적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 창조계 전체 차원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은 개인의 실천적 자선과 더불어 공정한 사회구조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빈곤에 대한 입장들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중 한가지로 선택해 왔다. 신학적 입장은 교회공동체의 역할을 단순히 개인의 영성 성장의 종교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파생되는 삶의 문제까지도 종교적 차원으로 해결하려는 입장과 사회적 해방이 곧 종교적 해방이라는 동일시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입장의 대립을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영성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거룩의 차원과 세속의 차원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신앙의 통전적 차원, 교회역할의 공공신학적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비판적이고도 창조적으로 해석해 갈 필요가 있다.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의 보호법, 안식일 정신이나 희년의 원리 등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맥락에서만 이해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존재하였던 약자와 빈곤한 자들을 배려한 종교적이고자 사회적인 제도였음을 주지해야 한다.²⁴⁾ 따라서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도한 탐욕의

21) Michael Taylor, *Christianity, Poverty and Wealth* (WCC Publications, 2003), pp.27-28.

22) Ibid, p.29.

23) Ibid, pp.30-32.

맘모니즘적 성향의 삶과 지구화 현상과 맞물려 강조되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 대하여, 또한 이로 말미암아 더욱 극대화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에 대하여 교회공동체는 공적 신학의 맥락에서 진지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공동체 차원에서 빈곤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시작은 신학적 차원의 성찰을 넘어서서 사회학적이고 교육학적 이해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²⁴⁾

2.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접근

빈곤아동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접근의 시작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교육적 정책 및 실천들을 살펴보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 교회공동체의 교육적 실천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공동체의 기독교 교육적 실행을 사회학적 교육학적 교류와 통섭 속에서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교육적 정책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아동들의 가난 대물림의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왔다. 일찍이 미국은 Head Start, 영국은 Sure Start, 캐나다는 Fair Start, 호주는 Best Start라는 아동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빈곤 아동들이 공정한 교육, 복지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미 전역에서 1만 8000여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Head Start는 취학 전 빈곤아동들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기 아동보육프로그램이다.²⁵⁾

이것은 특별 보상교육의 이론적 근거인데 단어자체가 말해주듯이 빈민층 자녀들의 교육을 타 계층의 아동들보다 1~3년 일찍(head) 시작(start)하여 그 기간 중, 1) 무상음식 제공으로 충분한 영양섭취를 도와 지적, 신체적 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2)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분위기를 일찍 접하게 함으로써 취학 후 학업성적의 부진의 약점을 피하게 하며, 3) 후일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빈민층 자녀들을 구별하여 돕는 것을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회균등이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박애주의적 평등개념의 교육이라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단지 동등한 입학 자격이나 무상의 의무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넓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업 성적까지 고려하여 졸업 후 경제적 사회적 성공이 도움이 되도록 특별

24)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3), pp.31-32.

25) Ibid, pp. 33-36. 조은하, 『빈곤에 대한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적 역할』, 『신학과 현장』 제18집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2008), 203-219쪽.

26)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와 희망을 키운다』 (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9), 25쪽.

기회를 마련해 주는 차원까지를 기회균등의 이념의 적용범위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재정을 모든 아동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쓰이도록 하는 균등한 분배원칙을 초월하여 빈민층 아동들에게 더 많은 교육재정이 쓰이도록 하는 불균형의 분배원칙을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개념이 바로 ‘공정적 차별화’이다.²⁷⁾

이러한 박애주의적인 평등의 원리와 ‘긍정적 차별’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실행되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Sure Start는 모든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층 아동들이 보육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층 아동들이 받기 어려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부모들이 일자리를 갖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 보건, 교육, 취업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캐나다의 Fair Start는 18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게 시력, 청력, 사회성, 언어능력, 체력, 손놀림 등 여섯 가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문제를 빨리 발견, 치료함으로써 빈곤아동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두뇌의 75% 이상이 5세 이전에 발달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빈곤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Best Start는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 대해 보건, 발달, 인지 등에 있어서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득, 인종, 지역 등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부모, 가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차원에서 We Start운동본부를 출범시켜 “We Start 마을 만들기”사업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출발선 만들기, 건강지킴이,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참여정부에서 “희망스타트”로 정책화하여 실행하기도 하였다.²⁸⁾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육적 기회균등 및 사회적 자립의 기초를 위한 ‘긍정적 차별화’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박애주의적 평등의 개념이다. ‘긍정적 차별화’는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계층구조가 결국은 교육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는 교육재생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빈곤아동의 대물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3. 빈곤아동을 위한 교회공동체의 기독교 교육적 역할

그렇다면 이러한 빈곤아동에 대한 교회의 교육적 실천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환대와 공존의 신학, 영성과 물질세계와의 통전을 논의하는 신앙의 통전성, 교육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차별화’의 원리를 기초로 하였을 때 교회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27)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195-196쪽.

28)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와 희망을 키운다』(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9), 25쪽.

맥락 속에서 교육적 역할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교회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간학문적인 이해를 통해 현대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며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역할 구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하여 기독교교육전문가와 목회자들의 전문적 이해 및 신학적 인식을 위한 교육과정의 실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학과 기독교사회복지와의 학문적 대화 및 교류를 통하여 통전적 목회와 교육과정 가운데 사회복지적 실천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학대학내의 교육과정가운데 사회복지 이론이나 실천에 대한 과목들이 개설될 필요가 있으며 목회실습을 통해 사회복지 차원의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²⁹⁾

두 번째, 빈곤아동들이 건강한 신앙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정적 차별화’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공정적 차별화’란 모든 아동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사회적 결손을 가진 아동들,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특별하고도 전문화된 관심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희망의 인문학’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언론인이며 사회비평가인 얼 쇼리스는 사회 빈곤은 계속적반복의 문제를 ‘빈민’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³⁰⁾ 인문학 교육에 대한 제안은 그가 실제로 개설하고 ‘운영해온’클레멘트‘코스’의 수료자들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 빈곤의 문제는 노동을 통하여 정당한 재산을 축적해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의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익힘으로써 중산층의 정신과 도덕을 배움으로써 빈곤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시작된 클레멘트 코스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빈곤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정서적 지탱력이 되어 주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실천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시도되고 있다. 물론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이 가지고 기본 철학이 노동의 구조적 한계보다는 개인의 정신적 변화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맥락에 서있다고 비판하는 관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 가치 속에서 재화로 환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하여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29) 최근 기독교학회내의 분과로 “기독교사회복지” 영역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무적인 일이며 더 나아가 각 신학대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차원의 접근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0) 미국의 언론인이며 사회비평가인 얼 쇼리스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교도소를 방문해 한 여죄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할까요?”라는 쇼리스의 질문에 비즈니스 워커라는 여인은 “시내 중심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신적 삶이 우리에게겐 없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연주회와 공연, 박물관, 강연과 같은 ‘인문학’을 접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사고하는 법,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을 몰라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인 교육의 시도는 아동들에게도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강연회, 음악회, 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상 및 타자와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도덕적 대안을 형성해 가야 한다.³¹⁾ 또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시민의 삶을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³²⁾

세 번째, 빈곤아동들에 교육적이며 종교적인 후원 및 지지, 정책은 전 교단적이며 연합적인 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회공동체는 사회적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체제 및 구조가 평등하고 공정한 구조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회기초조직을 봉사기지화 하고 지역교회를 봉사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로 결성할 필요가 있다.³³⁾ 예를 들어 개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센터’와 같은 기관들을 개교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들을 교단적 차원에서 실제화하여 운영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빈곤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 및 입법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마리아 해리스는 기독교교육의 디아코니아 수행에 대하여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는 가난하고 집이 없고 빈곤한 자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돕는 일이다. 이것은 전 지구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은 디아코니아가 불의한 상황들을 영속화 시키는 사회체제와 구조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정치적 영역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재형성시키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이 모든 일은 기독교 복음이 비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지만 그 구체적 활동들은 심오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1) 아프리카 케냐의 고로고초에서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야 하는 빈곤 아동들. 그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도 내일을 기다릴 희망도 없었다. 선교를 갔던 개신교 목사에게 의해 창단된 ‘지라니’합창단. 그 아이들은 합창단 안에서 노래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배웠고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를 배웠다.

32) 얼 쇼리스, 『희망의 인문학』(서울: 이매진, 2006), 55쪽. 실례로 한국에서 시행도니 노원 성프란시스 코스는 노숙인으로부터 노숙의 생활을 벗어나 자활의 기회를 갖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임철우 외, 『행복한 인문학: 세상과 소통하는 행복한 인문학수업』(서울: 이매진, 2008) 참고.

33) 유장준,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제8권(서울: 연세사회복지연구소, 2002), 86-87쪽.

34)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고용수 역, 『희중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80-189쪽.

V. 나가는 말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렇기에 교회공동체는 사회적 삶의 자리와 시대의 상황들을 늘 주시하고 해석하며, 그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해 가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 속에서 아동의 수는 줄어들되 위기아동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전체의 위기이며 책임이다. 또한 교회공동체의 사회적 책무와 디아코니아에 대한 비판적이고도 창조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교육실천 및 교단연합적인 정책수립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입법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위기아동들이 그들의 삶속에서 ‘빌리 엘리엇’처럼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교육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권영길,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서울: 권영길의원실, 2009.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와 희망을 키운다」, 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9.
- 양명수, 「기독교사회정의론—가르치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얼 쇼리스, 「희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2006.
- 임철우외, 「행복한 인문학: 세상과 소통하는 행복한 인문학수업」, 서울: 이매진, 2008.
-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제8권, 서울: 연세사회복지연구소, 2002.
- 조은하, 「빈곤에 대한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적 역할」, 『신학과 현장』 제18집,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2008.
- _____,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동연, 2010.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고용수 역, 「회중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Koeni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김기영 역, 「환대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Leech, Kenneth, *The Social God*, 신현기 역, 「사회적 하나님: 교회는 왜 사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가?」, 서울: 청림, 2009.
- Lynn, Robert, *The big little school*, 유재덕 역, 「크지만 작은 학교」, 서울: 하늘기획, 2010.
- Graaham, Larry, *Care of Persons, Care of Worl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 Hessel, Dieter T., *Social Minist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2.
- Kornfeld, Margaret, *Cultivating Wholeness*, 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1998.
- Ramsey, Nancy(ed),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edefining the paradig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 Sherrill Lewis J.,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3.
- Taylor, Michael, *Christianity, Poverty and Wealth*, WCC Publications, 2003.
- Thornton, Sharon, *Broken yet Beloved: A Pastoral Theology of the Cross*, St.Louis, MO: Chalice Press, 2002.

원고접수: 2010년 10월 18일 1차심사: 12월 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소개: 조은하

① 전공: 기독교교육학/소속: 목원대학교

② 관심영역: 기독교영성교육, 미래세대와 기독교교육, 예술과 기독교교육 등

③ 주요논저: 통전적 영성과 기독교교육(서울: 동연, 2010)

④ E-mail: eunhaedu@paran.com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for Helping Children in Crisis**

Cho, Eunha

Mokwon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is always derived from real life situations (*Sitz im Leben*). Christian educators cast questions as to what God's will is and how one shall live if he/she wants to live a life in maturity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Reports on children's situations in Korea place in us a sense of crisis. A survey states that children do not feel satisfied in their learning process and do not have healthy and holistic relationships with their friends and parents. The more serious problem they face, however, i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in crisis' are increasing. Dissolution of family and intensification of poverty are major factors that increase the number of children in crisis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searched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for helping children in crisis. The theological basis for this discussion comes from the holistic nature of Christian faith (Psalm 146). It is Christian faith that seeks the Christian answers to not only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of life, but also to religious and spiritual problems. As it is known, Sunday school began in response to the needs of children who suffered in great poverty and ignorance. Hence our responsibility as Christian educators is present in helping kids who are in need, or in the midst of poverty. First, we need more concern and scholastic approach to ministry in the realm of diakonia. In so doing, both pastors and Christian educators need inter-disciplinary and systematic education for understanding in diakonia. Although protestant churches have played a great role in diakonia, there is a need of preparing curriculums which embrace inter-disciplinary conversation between theology and social welfare study. Second, we need to expand the areas of church children education. For example, we need more holistic education programs such as children centers, liberal arts programs for children and helping hands programs for children in crisis. Third, we need more practical awareness

and practice in terms of churches social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must be carried out not only in a personal level but in denominational and ecumenical dimensions. Through this effort, we shall be able to have broader concern for helping out children in crisis and we can help children to grow as more healthy and mature citizens. That is the major rol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in our current life situation.

Key words : children in crisis, theology of hospitality, Christian education, social responsibility, diakonia